

蘇軾의 仁·慈悲 사상 융합과 그 실천*

유지원**

〈目 次〉

1. 서론
2. 仁과 慈悲의 어원 및 개념
3. 蘇軾의 유배생활과 仁·慈悲 사상 실천양상
 - 1) 인권존중 - 영아·고아 구휼
 - 2) 생명보호 - 충어미물 방생
 - 3) 빈민사랑 - 교육과 의료지원
4.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 宋代의 대문호 蘇軾(1036~1101)의 문학·종교·사상·철학 등 학제간적 접근으로서 그의 공적 가치관인 유교적 仁과 불교적 慈悲사상에 대한 상보적이며 융합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그 실천적 특징에서 나타나는 유의미한 가치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식은 일생동안 仁과 慈悲 사상을 구현하고 실천한 인물로 손꼽아도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그는 북송시기 신·구법당 간의 당파싸움에 휘말려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고통과 좌절을 겪었다. 그러나 유배 중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항상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수고로움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 일반 사대부들에게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1471).

** 고려대학교 중문과 강사

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천고에 빛날 구호활동이었다.

소식이 머물렀다 떠나는 곳에는 언제나 그곳의 백성들이 나와 그를 배웅하고 슬퍼하였다. 소식의 생명력 있는 '애민사상'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인가. 그가 백성들로부터 그토록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 화두는 필자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고 본 연구의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소식 연구는 1980년 中國蘇軾學會가 창립된 후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국내·외 동양권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소식의 仁과 慈悲사상 融合에 관하여 깊이 있게 다룬 논문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서양에서는 1994년 미국학자 에간(Robert C. Egan)이 처음으로 소식의 '애민사상'에 대하여 연민과 자비 측면에서 깊이 고민하였고, 그 실천 사상을 유가사상보다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¹⁾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소식의 공적 감정으로 비견되는 '仁'과 '慈悲心' 주제를 결합하여 그 사상적 융합에 대한 의의와 현대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먼저 선행 작업으로 仁과 慈悲에 대한 어의 분석을 통해 그 동이성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항대립적인 두 사상에 대한 소식의 대표적인 업적 애민활동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仁과 慈悲의 어원 및 개념

仁과 慈悲는 儒敎와 佛敎의 핵심적 가치관으로서 최고의 실천덕목이다. 이 두 사상은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광의의 '사랑·연민'이라는 뜻이지만 내포와 외연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떼어놓을 수도 없는 관계에 있다. 仁은 유교에서 인륜을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교화 역할로 추구하였다면, 慈悲는 불교가 한량없는 중생을 향한 고통구제로서의 수행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孔子가 제창한 '仁'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後漢 경학가 許慎

1) Robert C. Egan, *Word, Image, and Deed in the Life of Su Shi*,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58경~147경)은 『說文解字』에서 ‘仁’은 ‘親’의 의미이고 人+二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하였다. 청대학자 段玉裁(1735~1815)는 注에서 ‘親’은 ‘구조가 긴밀한 것’이고, 중용에서 ‘仁’은 ‘人’이라는 뜻이라고 기록하였다.²⁾ ‘仁’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두 사람 이상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유교의 핵심경전인 『論語』에서는 仁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① ‘번지가 仁을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仁者は 먼저 어려운 일을 하고 뒤에 이익을 얻는 일을 한다.”³⁾ ② ‘안연이 仁을 물으니, 공자께서는 “자기를 이기고 禮로 돌아가는 것이다”고 하셨다.⁴⁾ ③ ‘중궁이 仁을 물으니, 공자께서는 “문을 나가면 큰 손님을 대하듯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제사를 받들 듯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 것이다.”고 하셨다.⁵⁾ ④ ‘사마우가 仁을 물으니, 공자께서 “仁者は 그 말을 참는 것이다.”고 하셨다.⁶⁾ ⑤ ‘번지가 仁을 물으니, 공자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고 하셨다.⁷⁾ ⑥ ‘번지가 仁을 물으니, 공자께서는 “거처할 때 공손하며, 일할 때에 공경하며, 사람과 사귄 때는 진심을 다해야 한다.”고 하셨다.⁸⁾ ⑦ ‘자장이 공자에게 仁에 대해 물으니, …… 공자께서는 “공손·관용·신의·민첩·은혜이니라.”고 말씀하셨다.⁹⁾

『논어』는 전체 20편 49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仁’자는 58장에 분포되어 있고 109회 출현하는데,¹⁰⁾ 仁에 대한 즉문즉답은 위 예문과 같이 7회에 걸

2) 段玉裁, 『說文解字注』 권8, 869쪽, 「人部」: “仁, 親也. 從人二.”; “(仁)親也. 見部曰. 親者, 密至也. 從人二. 會意. 中庸曰. 仁者, 人也.”
 3) 『論語·雍也』: “樊遲……問仁. 曰, “仁者先難而後獲, 可謂仁矣.”
 4) 『論語·顏淵』: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5) 『論語·顏淵』: “仲弓問仁. 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無怨, 在家無怨.”
 6) 『論語·顏淵』: “司馬牛問仁. 子曰, “仁者, 其言也訕.”
 7) 『論語·顏淵』: “樊遲問仁. 子曰, “愛人.”
 8) 『論語·子路』: “樊遲問仁. 子曰,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
 9) 『論語·陽貨』: “子張問仁於孔子. 孔子曰, “能行五者於天下爲仁矣.” “請問之.” 曰, “恭寬信敏惠. 恭則不侮, 寬則得衆,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足以使人.”
 10) 學而 3회 / 八佾 2회 / 里仁 8회 / 公治長 10회 / 雍也 13회 / 述而 7회 / 太伯 3회 / 子罕 2회 / 顏淵 13회 / 子路 3회 / 憲問 11회 / 衛靈公 11회 / 陽貨 6회 / 微子 1회 / 子張 3회 / 堯曰 3회.

쳐 이루어졌다. 공자는 제자들의 '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그 때 그 때 상황과 상대에 따라 그에 알맞은 답변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희에게는 '극기복례'라 하였고, 번지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愛人)'이라고 하였으며, 자장에게는 '공손·관용·신의·민첩·은혜'로 설명해주었다. 하지만 공자는 자신의 道는 오직 '하나임을 강조한다. 다음은 공자와 증자, 그리고 제3자와의 문답을 보기로 하자.

공자께서 “참아, 내 道는 하나로 관철되어 있다”고 하시니, 증자가 “예”라고 대답하였다. 공자께서 나가시자 제자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증자는 “선생님의 도는 忠과 恕일 뿐입니다”라고 했다.¹¹⁾

만물의 근본인 體는 하나요, 만물이 각기 제 곳을 얻음은 도의 用이 된다. '忠'은 자기의 마음을 다 하는 것이요, '恕'는 자기 마음을 미루어서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공자가 구현하고자 했던 道는 사람을 사랑하는 仁이고 仁은 인간의 본성인 體이므로 하나로 관철되어 있다고 한 것이다. 증자는 공자의 仁을 한마디로 '忠恕'라고 명명하였다. 위 예문가운데 ⑤ 내용은 공자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목표 '仁'에 대한 설명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愛人)' 즉 인본주의를 지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한 예라고 것이다.

다음은 불교의 '慈悲'에 대한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慈悲는 초기불교부터 대승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생명에 대한 평등무차별의 실천덕목이다. 慈와 悲의 병렬합성어이다. 𑖀리어로는 메따 까루나(mettā-karuṇā)이며, 산스크리트어의 마이뜨리 까루나(maitri-karuṇā)를 번역한 단어이다. 메따(mettā, 慈)는 남의 이익과 행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정의되어, 본질적으로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利他的 태도를 의미한다. 慈, 慈念, 慈心 등으로 한역하며, friendship, friendliness, Ren, good will 등으로 영역한다. 까루나(karuṇā, 悲)는 원래 불쌍히 여김[哀愍]이나 동정의 뜻이고, 悲, 大悲, 大悲心, 慈悲, 大慈大

11) 『論語·里仁』: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悲 등으로 한역하며 pity, compassion, sympathy 등으로 영역하고 있다.¹²⁾ 慈怡의 『佛光大辭典』에서는 ‘慈悲’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慈는 범어로 마이뜨리아(maitrya), 마이뜨리(maitri), 팔리어로는 메띠(metti)이다 : 悲는 범어로 까루나(karuṇā), 팔리어도 같다. ‘중생들을 慈愛하고 또 즐거움을 주는 것’을 ‘慈’라고 한다 : 그 고통을 동감하고,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悲’라고 한다 : 이 두 가지를 합쳐서 ‘慈悲’라고 한다.¹³⁾

慈悲에 대한 사전적 의미, 불교학적 개념은 붓다의 傳法 결단 장면에서부터 출발한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후 설법을 망설였다가 자신이 발견한 ‘고통을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 법[離苦得樂]’을 알리기 위해 세상에 나오기로 마음을 바꾼 일은 유명한 일화이다. 이 동기가 바로 중생에 대한 ‘연민, 즉 까루나(karuṇā, 悲)의 원형이라고 말한다. 불교의 慈悲는 붓다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⁴⁾ 그래서 대승불전 속에서의 慈悲에 대한 정의는 중생을 위한 자애[慈]·연민[悲]·즐거움[喜]·버림[捨] 등 네 가지 四無量心으로 표현하고 있다. 『大智度論』에서는 慈悲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慈’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안온과 즐거운 일을 찾아서 그들에게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다 : ‘悲’는 중생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천상 등 五道 가운데 갖가지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것을 가엾이 여기는 것이다 : ‘喜’는 중생들이 즐거움을 따라 환희하게 하는 것이다 : ‘捨’는 慈·悲·喜 세 가지 마음을 버리고, 다만 중생을 생각하되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을 말한다.¹⁵⁾

12) 문을식, 『대승불전에서 자비 개념의 전개 양상』,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012, 170-171쪽 참고.

13) 慈怡, 『佛光大辭典』, 北京, 北京圖書出版社, 2004, 7291쪽: “慈, 梵語 maitrya, maitrī, 巴利語 metti ; 悲, 梵語 karuṇā, 巴利語同. 慈愛衆生並給與快樂(與樂), 稱爲慈; 同感其苦, 憐憫衆生, 並拔除其苦(拔苦), 稱爲悲; 二者合稱爲慈悲. 佛陀之悲乃是以衆生苦爲己苦之同心同感狀態, 故稱同體大悲. 又其悲心廣大無盡, 故稱無蓋大悲. 無有更廣·更大·更上於此悲者.”

14) 미산 외,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서울, 운주사, 2015, 81쪽 참고.

15) 龍樹, 『大智度論』(T25, 0208c09): “慈名愛念衆生, 常求安隱樂事以饒益之; 悲名愍念衆

慈悲 수행의 四無量心은 중생을 사랑하고 연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없애주는 행동의 결과로 설명된다. 慈·悲·喜의 마음은 사랑이 깊기 때문에 집착을 버리기 어렵다. 마지막 捨心에 들어서야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⁶⁾ 四無量心에서의 慈悲 사상은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더욱 체계화 되었는데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慈悲에는 세 가지가 있다. ① ‘중생연’의 慈悲이다. 또 유정연의 慈, 중생연의 慈라고 한다. 즉 일체중생이 마치 갓난아이와 같다고 보고, 즐거움은 주고 고통은 없애주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범부의 慈悲이다. 성문, 연각, 보살 등 三乘의 최초 慈悲 또한 이 종류에 속한다. 그러므로 ‘小悲’라고도 한다. ② ‘법연’의 慈悲이다. 모든 법을 깨닫고 無我的 진리에서 일어난 慈悲를 가리킨다. 아라한의 二乘 및 초지 이상 보살의 慈悲와 연결되어 있다. ‘中悲’라고도 한다. ③ ‘무연’의 慈悲이다. 차별을 멀리한 견해로서 무분별의 마음으로 일으킨 평등하고 절대적인 慈悲가 된다. 이것은 오직 붓다만이 갖춘 ‘大悲’로서 범부와 二乘 등이 일으킬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大慈大悲’(산스크리트어: 마하-마이뜨리-마하-까루나 mahā-maitrī-mahā-karuṇā), ‘大慈悲’라고 한다.¹⁷⁾

위와 같이 대승에서는 慈悲를 중생연, 법연, 무연 등의 범주를 정하고, 이 가운데 ‘無緣’의 慈悲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는 衆生을 인연으로 하는 慈悲요, 둘째와 셋째는 法을 인연으로 하는 慈悲이다. 범부는 중생연이다. 성문과

生受五道中種種身苦心苦; 「喜」名欲令衆生從樂得歡喜; 「捨」名捨三種心, 但念衆生不憎不愛.”

16) 龍樹, 『大智度論』(T25, 0210b05): “欲令衆生得實事, 當發心作佛, 行六波羅蜜, 具足佛法, 令衆生得是實樂. 以是故, 捨是三心, 入是捨心.”

17) 慈怡, 『佛光大辭典』, 北京, 北京圖書出版社, 2004, 7291쪽: “慈悲有三種: (1)生緣慈悲, 又作有情緣慈、衆生緣慈. 卽觀一切衆生猶如赤子, 而與樂拔苦, 此乃凡夫之慈悲. 然三乘(聲聞、緣覺、菩薩)最初之慈悲亦屬此種, 故亦稱小悲. (2)法緣慈悲, 指開悟諸法乃無我之眞理所起之慈悲. 係無學(阿羅漢)之二乘及初地以上菩薩之慈悲, 又稱中悲. (3)無緣慈悲, 爲遠離差別之見解, 無分別心而起的平等絕對之慈悲, 此係佛獨具之大悲, 非凡夫、二乘等所能起, 故特稱爲大慈大悲(梵 mahā-maitrī-mahā-karuṇā), 大慈悲.”[菩薩地持經 卷7, 十地經論 卷2, 佛地經論 卷5, 大毘婆沙論 卷17, 卷82, 十住毘婆沙論 卷1, 順正理論 卷78, 往生論註 卷下]

벽지불 및 보살은 처음에는 중생연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법연으로 나아가게 된다. 모든 붓다가 畢竟空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無緣'이라고 한다. '無緣'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다'는 뜻이고 諸法實相인 '空' 또는 如來를 보며 행하는 慈悲를 말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고 空性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¹⁸⁾ 空性의 경지에 이르면 중생의 고통이 보이고 慈悲心은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일반 慈悲와 개념을 달리하여 大慈悲, 大慈大悲라고 하는 것이다. 『大智度論』은 여러 곳에서 이 단계의 慈悲는 붓다에게만 해당한다는 입지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3. 蘇軾의 유배생활과 仁·慈悲 사상 실천양상

1) 인권존중 - 영아·고아 구휼

蘇軾(1036~1101)은 부친 蘇洵(1009~1066)·동생 蘇轍(1039~1112)과 더불어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서, 송대 대다수 사대부들이 儒學을 바탕으로 佛敎를 받아들였던 북송초기의 居士佛敎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인물이다. 소식의 字는 子瞻이고 東坡는 자호이다. '東坡'는 소식이 46세(元豐 4년, 1081) 2월 필화사건인 烏臺詩案으로 黃州에 유배되었을 때 친구 馬夢得으로부터 얻은 균영지를 개간하여 생활고를 해결하였는데, 그 땅을 '동파[동쪽 언덕]'라 명명한 후 스스로 '東坡居士'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소식은 정치인생에서 세 번의 유배생활을 하였다. 제1차 쫓겨나는 漢口에서 60마일 떨어진 黃州라는 곳이다. 그는 황제와 조정을 비방하는 詩文을 지었다는 죄명으로 黃州에서 45세(元豐3년, 1080)부터 汝州로 떠나는 49세(元豐7년, 1084)까지 약 4년 4개월을 보낸다. 黃州는 궁벽지고 가난하며 기후도 좋지 않은 곳이었다.

18) 문율식, 위의 책 181쪽 참고.

황주는 외지고 비오는 날이 많으며 날씨는 흐립니다. 생선·쌀·팥나무는 매우 싸서 빈궁한 사람에게는 매우 좋습니다. …… 저는 절에 잠시 머물면서 배움에 채소를 먹고 스님을 따라 한 끼 식사를 하니 간편합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여기로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곤궁과 영달 그리고 얻는 것과 잃는 것의 이치는 대략 압니다만, 녹봉이 끊기니 일 년 안에 배고프고 춥게 될까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오직 佛經으로 날을 보내며 붓과 벼루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¹⁹⁾

이 글은 元豐 3년(1080) 3월에 친구 子厚에게 보낸 편지이다. 소식의 곤궁한 처지와 곧 도착할 가족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문장은 더 이상 짓지 않고 있으며 佛書를 가까이 하고 스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소식은 황주에 도착한 후 定慧院이라는 절에서 방 하나를 얻어 스님들과 같이 蔬食을 하며 지냈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루 이틀 간격으로 安國寺라는 절을 찾아 향을 피우고 參禪을 하며 보내기도 했다.²⁰⁾ 한편 소식은 黃州 유배기간 비록 정치적 권한은 상실되었지만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서도 백성을 위하는 마음과 임금에 대한 충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왕천린이 말하기를, “鄂州와 岳州 지역의 민간에서는 대개 2남1녀를 양육하고 아이가 더 생기면 곧 죽인다고 합니다. 더욱이 여아를 기르는 것은 꺼리기 때문에 민간에는 여자가 적고 홀아비는 많다”고 합니다. …… 불교에서는 살생죄 가운데 胎卵의 살생죄가 가장 큼니다. 소·말·양·돼지·개·닭 등 여섯 가축도 그러하건대,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속담에 ‘아이의 병은 무고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는 참으로 ‘무고한 일이다’고 할 만합니다. 노인은 살인을 해도 죽이지 않거늘, 오히려 죄도 없는 아이를 죽인단 말입니까!²¹⁾

19) 『蘇軾文集』卷49, 「與章子厚參政書二首之一」: “黃州僻陋多雨, 氣象昏昏也. 魚稻薪炭頗賤, 甚與窮者相宜. …… 見寓僧舍, 布衣蔬食, 隨僧一餐, 差爲簡便, 以此畏其到也. 窮達得喪, 粗了其理, 但祿廩相絕, 恐年載間, 遂有饑寒之憂, 不能不少念. …… 惟佛經以遺日, 不復近筆硯矣.”

20) 『蘇軾文集』卷12, 「黃州安國寺記」: “得城南精舍曰安國寺, 有茂林修竹, 陂池亭榭, 間一二日輒往, 焚香默坐, 深自省察, 則物我相忘, 身心皆空, 求罪垢所從生而不可得. 一念清淨, 染汙自落, 表裏翛然, 無所附麗. 私竊樂之. 旦往而暮還者, 五年於此矣.”

21) 『蘇軾文集』卷49, 「與朱鄂州書」: “天麟言: 鄂嶽間田野小人, 例只養二男一女, 過此輒殺之, 尤諱養女, 以故民間少女, 多鰥夫. …… 佛言殺生之罪, 以殺胎卵爲最重. 六畜猶爾, 而況於人. 俗謂小兒病爲無辜, 此真可謂無辜矣. 悼老殺人猶不死, 況無罪而殺之乎?”

이 글은 소식이 47세(元豐5년, 1082년)에 쓴 것이다. 친구인 王天麟으로부터 鄂州 지역의 영아유기와 살해 실상을 듣고 비분강개하여 태수 朱康叔에게 이 악습을 근절시켜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편지이다. 특히 여아를 쉽게 살해하는 것은 남녀차별 인권침해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살생은 慈悲의 종자가 끊어진다고 하여 불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행동지침이다. 이에 관하여 소식은 잘못된 풍습이 폐지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을 적용하여 자손을 살해한 자는 2년간 노역을 시키고, 부유한 지주들에게는 빈한한 가정을 돕도록 할 것이며, 부모가 정말 가난하여 아이를 기를 수 없을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였다.²²⁾ 아울러 소식은 자신의 경험담을 예로 들었다.

제가 密州에서 知州로 있을 때 기근이 들어 마을 백성들은 대부분 자기 아이들을 내다버렸습니다. 그래서 권유미를 계산하여 초과분 수백 석의 쌀을 얻어 별도로 비축하였고, 오직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들이고 키우는 데 매달 여섯 말을 지급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양육자와 아이들은 모두 부모자식 간의 사랑이 생기게 되었고, 드디어 가정을 잃지 않게 되었는데 이렇게 살린 아이들이 또한 수천 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공무에서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우정을 믿고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너그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백성들을 위해 자중하시길 바랍니다.²³⁾

소식은 黃州로 유배되기 전 39세~41세(熙寧7년, 1074~熙寧9년, 1076)까지 密州지주로 재임할 당시 기근으로 인한 영아유기 사건을 목도하고 해결에 나섰던 것이다. 당시 소식 자신도 버려진 아이들을 손수 거두어 키우기도 하였고 고아들을 입양시켜 공적인 양육비 명목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리하여 수천 명

22) 『蘇軾文集』卷49, 「與朱鄂州書」: “準律, 故殺子孫, 徒二年. 此長吏所得按舉. 願公明以告諸邑令佐, 使召諸保正, 告以法律, 諭以禍福, 約以必行, 使歸轉以相語, 仍錄條粉壁曉示, 且立賞召人告官, 賞錢以犯人及鄰保家財充. 若客戶則及其地主. 婦人懷孕, 經涉歲月, 鄰保地主, 無不知者. 若後殺之, 其勢足相舉覺, 容而不告, 使出賞固宜. 若依律行遣數人, 此風便革. 公更使令佐各以至意誘諭地主豪戶, 若實貧甚不能舉子者, 薄有以周之. 人非木石, 亦必樂從.”

23) 『蘇軾文集』卷49, 「與朱鄂州書」: “軾向在密州, 遇饑年, 民多棄子, 因盤量勸誘米, 得出剩數百石別儲之, 專以收養棄兒, 月給六斗. 比暮年, 養者與兒, 皆有父母之愛, 遂不失所, 所活亦數千人. 此等事, 在公如反手耳. 恃深契, 故不自外. 不罪! 不罪! 此外, 惟爲民自重.”

의 어린아이들이 구제되었던 것이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소식은 차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다음 작품 「黃鄂之風」을 보기로 한다.

옛 벗 수장 '朱康叔'이 鄂州의 지주로 있어서 편지를 보내 상벌을 정해 이린 풍속을 바꾸도록 했다. 황주 사대부 '古耕道'는 비록 우둔하기는 하나 성실하고 선행하기를 좋아한다. 이에 황주의 부자들을 인솔하여 해마다 10畝 이상을 내도록 하고 이 액수를 초과하고자 하면 역시 허락하도록 하였다. '고경도'에게 그 일을 관리하고 쌀·천·비단·면 등을 많이 사게 했으며 安國寺 승려 '계련'에게는 회계와 서기를 맡도록 했다. 그리고 시골을 방문하여 가난하기 때문에 자식을 기르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조금씩 그것을 주었다. 만약 해마다 백 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또한 한 가한 생활에서 하나의 즐거움일 것이다.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또한 마땅히 10畝를 내놓았다.²⁴⁾

소식은 黃州 태수 朱康叔에게 영아살해 금지와 고아입양 제도를 권고하면서 자신도 모금활동을 하고 기금도 위탁하였다. 黃州의 부유한 지주 古耕道에게는 관리를, 안국사 승려 繼蓮에게는 장부 정리를 맡겼다. 소식은 黃州 유배지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어린아이를 살리는 활동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였다.

2) 생명보호 - 총어미물 방생

소식은 元祐 8년(1093) 高太后가 붕어하고 哲宗이 친정을 하게 되자 新法黨의 득세로 두 번째 박해를 받았다. 舊法黨 입장이었던 소식은 재상 章惇에 의해 선제 비방이라는 죄목으로 翰林學士의 관직이 삭탈되고 59세(紹聖원년, 1094)부터 62세(紹聖4년, 1097)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惠州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그는 이미 黃州에서 한 번 혹독한 유배생활의 경험을 거치고 參禪 수행과 깨달

24) 『蘇軾文集』卷72, 「黃鄂之風」: “聞之不忍. 會故人朱壽昌康叔守鄂州, 迺以書遺之, 俾立賞罰以變此風. 黃之士古耕道, 雖椎魯無它長, 然頗誠實, 喜爲善. 乃使率黃人之富者, 歲出十千, 如願過此者, 亦聽. 使耕道掌之, 多買米布絹絮, 使安國寺僧繼蓮書其出入. 訪問里田野有貧甚不舉子者, 輒少遺之. 若歲活得百箇小兒, 亦閑居一樂事也. 吾雖貧, 亦當出十千.”

음의 체험을 통해 安心을 얻음으로써²⁵⁾ 사상적으로도 融合된 정신이 반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차 펴적지 惠州에서는 현실이 좋거나 나쁘거나 늘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인연 따라 달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식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소식은 처음 惠州에 도착하여 嘉祐寺의 松風亭에서 임시로 거주하게 되었다.²⁶⁾ 惠州는 아열대지역으로 말라리아 병이 잘 전염되었으나 의약이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다. 杭州의 승려 친구 參寥는 인편으로 편지와 쌀 등을 보내면서 소식의 정신적 힘이 되어주었고 天竺寺 靈隱 선사도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었다.²⁷⁾ 黃州의 定慧院의 守欽 장로는 소식이 청정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擬寒山詩 10首를 제자 卓契順에게 보내 안부와 함께 평을 부탁하기도 하였다.²⁸⁾ 소식은 그 시들을 매우 좋아하여 화답시 8首를 지었다. 첫 수를 보기로 하자.

左角看破楚,	원 뿔로 초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南柯聞長滕.	南柯에서滕公의 승리 소식을 듣네.
鉤簾待乳燕,	주렴을 걸어 올려 어린 '제비' 기다리고
穴紙出癡蠅.	문종이 구멍 뚫어 어리석은 '파리' 내보내네.
爲鼠常留飯,	'생쥐'를 위해 언제나 밥을 남겨두고
憐蛾不點燈.	'나방'을 불쌍히 여겨 등불은 아니 켜네.
崎嶇眞可笑,	기구함이 참으로 우습나니
我是小乘僧. ²⁹⁾	나는 小乘의 승려라오.

위 시는 5언 8구로 이루어진 古今體詩로서 소식의 어려운 현실과 생명존중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首聯은 덧없는 인간세상의 부귀득실에 대한 우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고조 유방과 항우의 싸움은 달팽이의 좌우 뿔이 싸우는 형국이

25) 柳知源, 「禪宗 公案과 蘇軾의 불교적 깨달음」, 『동아시아불교문화』 제32집, 2017 참고.
 26) 『蘇軾文集』 卷70, 「題嘉祐寺壁」: “紹聖元年十月二日, 軾始至惠州, 寓居嘉祐寺松風亭.”
 27) 『蘇軾文集』 卷61, 「與參寥子二十一首之十七」: “專人遠來, 辱手書并示近詩, 如獲一笑之樂, 數日慰喜忘味也. 某到貶所半年, 凡百粗遣, 更不能細說. 大略只似靈隱天竺和尚退院後, 卻住一箇小村院子, 折足鐺中, 奄糙米飯便喫, 便過一生也得.”
 28) 柳知源, 『蘇軾 禪詩 意境의 심화양상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47쪽 참고.
 29) 『蘇軾詩集』 卷39, 「次韻定慧欽長老見寄」.

고, 마부출신 夏侯嬰이 유방의 친구가 되어 서한의 개국공신 작위를 받아 滕公에 올랐지만 모두 부질없는 일이라는 표현이다. 新·舊法堂 당쟁에 대하여 은유법을 사용하여 비판한 것이다. 頷聯과 頸聯은 제비-파리, 생쥐-나방을 대비시키며 미물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었다. 생명존중의 폭이 매우 확대되어있는 소식의 慈愛로운 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하물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겠는가. 尾聯은 처세하기 어려운 자신의 기구한 인생에 대한 自笑이며, 守欽 장로에 대한 존경심과 스스로를 낮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小乘僧은 깨달음은 얻었지만 아직 大慈悲心을 내는 경지는 아니다. 겸양의 표현이다.

소식은 또 혜주의 서쪽 호수 근처에 放生湖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놓아주고는 하였다. '방생'은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의 慈悲 사상이다. 이 호수는 '소동파의 방생호'로 알려졌는데 이 지역의 문인과 백성들도 명절이면 물고기를 사다가 여기에 놓아주고는 하던 것이 淸末까지 풍습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³⁰⁾ 사실 미물에까지 미치는 소식의 폭넓은 慈悲心은 어린시절부터 불심이 깊은 모친 程氏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記先夫人不殘鳥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집에는 서당 앞 정원에 대나무와 측백나무 그리고 온갖 무성한 화초들이 가득하여 못 새들이 날아와 그 위에 등지를 틀었다. 모친께서는 '殺生'을 싫어하셔서 아이들과 하인들에게 새를 잡지 말라고 하셨다. 몇 년 사이 새들이 아래쪽 가지까지 등지를 틀어서 몸을 숙이면 그 새끼를 볼 수 있었다. 또 오동나무 꽃에 봉황이 4, 5일을 날아다니다가 그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이 새는 깃털이 진기하여 매우 보기 어려운데, 순하게 길들여져 특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다. 이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해치지 않는 정성과 신의로 이물을 대했기 때문이다.³¹⁾

모친의 따뜻한 慈悲心은 생물과 미미한 날짐승들에게까지 닿았음을 알 수 있

30) 林語堂, 『蘇東坡傳』,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12, 208쪽 참고.

31) 『蘇軾文集』卷73, 「記先夫人不殘鳥雀」: “少時所居書堂前, 有竹柏雜花叢生滿庭, 衆鳥巢其上. 武陽君惡殺生, 兒童婢僕, 皆不得捕取鳥雀. 數年間, 皆巢於低枝, 其殼可俯而窺. 又有桐花鳳四五日翔集其間, 此鳥羽毛至爲珍異難見, 而能馴擾, 殊不畏人. 閭里間見之, 以爲異事. 此無它, 不伎之誠信於異類也.”

다. 겉으로 보이지 않고 느끼는 감정은 모든 생명들에게 에너지 과장으로 전달이 된다. 못 새들이 소식 집에 날아와 보급자리를 마련한 것은 모친의 미물에 대한 정성과 사랑이 온전하고 지극했기 때문이었다.

소식의 어린시절 이러한 경험은 그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가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었고 참된 배움의 의미를 가슴 깊이 느끼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소식의 仁과 慈悲의 뿌리는 그의 어머니 교육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3) 빈민사랑 - 교육과 의료지원

소식의 백성들에 대한 연민과 자비는 그가 관직에 머물러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유배지를 옮길 때마다 계속되었다. 소식은 惠州에 이어 최고 멀리 남쪽에 위치한 海南島(澮州)에까지 유배되었다. 그의 나이 62세(紹聖4년, 1097)부터 65세(紹聖7년, 1100)까지 약 2년 11개월의 기간이 해당된다. 사람들은 海南島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소식을 두고 “동파는 불행했지만 해남은 행복했다”라는 말을 종종 한다. 그것은 소식이 문맹이었던 해남도 사람들을 계몽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소식이 海南島 유배지로 들어가면서 스스로 다짐하는 시 한 편을 보기로 하겠다.

平生學道眞實意,	평생 道를 배우는 참된 뜻이,
豈與窮達俱存亡.	어찌 窮達에 따라 있고 없어지리오.
天其以我爲箕子,	하늘이 나를 箕子로 삼는다면,
要使此意留要荒.	요컨대 이 뜻은 먼 변방에 남기리.
他年誰作輿地志,	훗날 누가 지리서를 쓸 것인가,
海南萬里眞吾鄉. ³²⁾	먼 땅 해남도는 진실한 나의 고향.

이 시는 소식이 62세(紹聖3년, 1097) 5월 해남도 儋州로 가는 도중 梧州에서 지은 작품이다. 소식은 유배자 신분이다. 그러나 그는 멋진 세상을 만들어보겠다

32) 『蘇軾詩集』卷41, 「吾謫海南, 子由雷州, 被命卽行, 了不相知, 至梧, 乃聞其尚在藤也. 旦夕當追及, 作此詩示之」.

는 큰 뜻을 품은 개선장군 같은 기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외 같은 외로운 섬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맹세를 한다. 그리고 은나라 箕子가 朝鮮에서 백성들을 교화했듯이 자신도 海南島 사람이 되어 그 곳 백성들을 교화하겠노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시기 소식의 감정은 완곡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변화되었고, 정치참여에 대한 격했던 감정도 잔잔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海南島의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고 惠州에서보다도 훨씬 고생스러웠다.

儋州는 먹을 고기가 없고, 병이 나도 약이 없으며, 머무를 방도 없고, 나가도 친구가 없으며, 겨울에는 석탄이 없고, 여름에는 시원한 샘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쉽게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개 모두 없을 뿐입니다. 오직 한 가지 다행한 일은 瘴氣가 없다는 것입니다.³³⁾

이 글은 소식 나이 63세(紹聖5년, 1098) 초여름에 惠州 친구 程天牟에게 보낸 편지이다. 당시 海南島는 瓊州·崖州·儋州·萬州 등 네 개의 州가 둘러져 있고 그 가운데 100개의 마을이 있었다. 儋州는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하여 높이 올라가 중원을 바라보면 단지 넓은 바다와 허공만 보였다.³⁴⁾ 사실상 외지와 왕래가 어렵고 문명도 동떨어진 아주 외로운 섬이었다. 게다가 평소 오가던 벗들과의 서신왕래도 점점 끊어졌는데, 儋州에는 고기·약·친구·석탄·시원한 샘물도 없는 것이다. 소식은 주위를 돌아보니 하늘과 바다가 끝이 없어서 서글픈 생각에 상심하며 “언제나 이 섬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내 천지는 쌓인 물 가운데 있고, 九州는 큰 바다 가운데 있으며, 中國은 작은 바다 가운데 있으니, 생물 중에 어느 누가 섬에 있지 않겠는가? 라고 一笑했다.³⁵⁾ 유배지의 외롭고

33) 『蘇軾文集』卷55, 「與程秀才三首之一」: “此間食無肉, 病無藥, 居無室, 出無友, 冬無炭, 夏無寒泉, 然亦未易悉數, 大率皆無耳.”

34) 『蘇軾詩集』卷41, 「行瓊儋間, 肩輿坐睡, 夢中得句云 ……」: “四州環一島, 百洞蟠其中, 我行西北隅, 如度月半弓. 登高望中原, 但見積水空.”

35) 『蘇軾文集·蘇軾佚文集編』卷5, 「試筆自書」: “吾始至南海, 環視天水無際, 悽然傷之, 曰: “何時得出此島耶?” 已而思之. 天地在積水中, 九州在大瀛海中, 中國在少海中, 有生孰不在島者? …… 念此可以一笑.”

고달픈 생활여건에서도 소식은 항상 긍정적이고 초연하며 도량이 크고 넓은 태도를 가졌던 것이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소식은 63세(紹聖5년, 1098) 4월, 친구 張中이 빌려준 관사에서 쫓겨났다. 친구이지만 정치적으로 악연인 章惇이 董必을 파견하여 시찰보고가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소식은 난관에 봉착하고도 “그저 웃어넘긴다”³⁶⁾라고 하였다. 다음 작품을 보기로 하자

근래 아들 過와 함께 띠풀과 서까래를 엮어 집을 짓고 겨우 비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과 비용이 이미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십 수 명의 학생들이 일을 도와 몸소 흙탕물 속에서 수고하니 부끄럽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 몸이 있어서 조물주에게 맡겨 그 운행에 따르고 흘러가다가 구덩이를 만나면 그치니 아니 될 것은 없습니다.³⁷⁾

이 글은 소식이 거처할 공간을 잃고 학생들의 도움으로 겨우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茅屋을 지었다는 내용이다. 소식은 이곳을 ‘桃榔庵’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후 해남도의 학생들이 자주 방문을 하였기 때문에 소식은 이곳에 ‘載酒堂’이라는 학관을 개설하고 시와 글을 가르치며 해남도 사람들이 문맹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었다.

소식은 해남도 儋州 사람들이 병이 들어 아파도 약과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는 黃州 유배시절에 약을 지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즐겨하였고,³⁸⁾ 元祐6년 항주에서 임직할 때는 공립 병원이 없어서 정부기금과 자신의 사적인 돈을 모아 ‘安樂坊’을 건립하고 3년 동안 천 여명의 환자를 돌보기도 하였다.³⁹⁾ 소식이 이곳을 떠난 후에도 병원은 계속

36) 『蘇軾全集』卷84, 「答程全父推官書之一」: “初至, 僦官屋數椽, 近復遭迫逐, 不免買地結茅, 僅免露處, 而囊爲一空. 困厄之中, 何所不有, 置之不足道也, 聊爲一笑而已.”

37) 『蘇軾文集』卷55, 「與程秀才三首之一」: “近與小兒子結茅數椽居之, 僅庇風雨, 然勞費已不貲矣. 賴十數學生助工作, 躬泥水之役, 愧之不可言也. 尙有此身, 付與造物, 聽其運轉, 流行坎止, 無不可者.”

38) 『蘇軾文集』卷56, 「答畢仲舉二首之一」: “所云讀佛書及合藥救人二事, 以爲間居之賜甚厚. 佛書舊亦嘗看, 但闇塞不能通其妙, 獨時取其粗淺假說以自洗濯, 若農夫之去草, 旋去旋生, 雖若無益, 然終愈於不去也.”

39) 『蘇軾佚文集編』卷2, 「與某宣德書」: “蒙遣人致金五兩、銀一百五十兩爲贖. 軾自黃遷汝, 亦蒙公厚餉, 當時鄰於寒殍, 尙且辭避, 今忝近臣, 尙有餘瀝, 未卽枯竭, 豈可冒受. 又恐數逆

운영이 되었다. 다음 작품을 보기로 한다.

나는 일찍이 말하기를, “사람의 지극한 즐거움은 몸에 병이 없고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고 하였는데, 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없다. 그러나 근심과 질병이 있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온전한 즐거움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올 때마다 그들에게 줄 좋은 약을 비축하여, 구하는 자가 있으면 주고, 술을 빚어서 손님에게 마시게 하는 것을 즐겨워하였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대는 병이 없는데 많은 약을 비축하고 술을 마시지도 않으면서 술을 많이 빚어 자기 몸을 수고롭게 하여 남을 위하는 것은 무엇때문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병든 자가 약을 얻으면 저의 몸이 가벼워집니다 : 술을 마신 자가 곧드레가 되면 저는 얼큰하여 기분이 좋아지니, 모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⁴⁰⁾

이 작품은 소식이 어느 태수로부터 술을 선물로 받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지은 글이다. 唐代 대음주자인 東臯子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의 술버릇과 ‘최대 즐거움(至樂)’ 두 가지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몸과 마음의 건강, 인간에게 그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이다. 만일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소식은 그들에게 알맞는 약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다. 『維摩經』의 「觀衆生品」에서 무위법의 입장에서 중생에게 가없는 慈愛를 행한다는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이 소식의 仁과 慈悲心 실천에 관하여 그의 인생고난 정치역경과 함께 구현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소식은 66세(建中靖國元年, 1101) 5월, 杭州通判 시절에 왕래가 잦았던 江蘇省 鎮江의 金山寺를 다시 방문하면서 「自題金山畫像」이라는 시를 지었다.

盛意，非朋友之義，輒已移杭州，作公意捨之病坊。此蓋某在杭日所置，今已成倫理。歲收租米千斛，所活不貲，故用助買田，以養天民之窮者。此公家法，故推而行之，以資公之福壽，某亦與有榮焉。想必不訝。至於感佩之意，與收之囊中，了無異也。”(見《咸淳臨安志》卷八十八《恤民》之《養濟院》條下)

40) 『唐宋八大家文鈔』卷5, 「書東臯子傳後」: “常以謂人之至樂，莫若身無病而心無憂，我則無是二者矣。然人之有是者接於餘前，則餘安得全其樂乎?故所至常蓄善藥，有求者則與之，而尤喜釀酒以飲客。或曰:“子無病而多蓄藥，不飲而多釀酒，勞已以爲人，何也?”餘笑曰:“病者得藥，吾爲之體輕;飲者困於酒，吾爲之酣適，蓋專以自爲也。”

心似已灰之木, 마음은 이미 재가 된 나무와 같고,
 身如不繫之舟, 몸은 마치 묶이지 않은 배와 같네.
 問汝平生功業, “당신의 평생의 공업이 무엇이오?”라고 묻는다면,
 黃州惠州儋州, “황주·혜주·담주”라고 하겠네.

소식은 이 시를 짓고 2개월 후인 66세(建中靖國 원년, 1101) 瘴毒으로 常州에서 삶을 내려놓았다. 그는 임종 전 維琳長老에게 “큰 병은 몸이 있기 때문이니, 몸이 없으면 바로 병도 없다네”⁴¹⁾라는 시를 남겼다. 소식의 삶과 죽음에 대한 空性和 人연 生滅의 법칙이 표현된 인생 마지막의 유언이다. 소식의 禪 작품집 『東坡禪喜集』에는 “慈는 仁에 가깝고 悲는 義에 가깝다. 크고 원만한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모두 ‘平等’하여 둘이 없다.”⁴²⁾라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소식의 仁·慈悲 사상 융합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는 자신의 道는 오직 以一貫之라고 하였다. 소식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관심 및 배려, 그리고 고통구제로서의 慈悲心 실천은 공자의 仁과 붓다의 慈悲 사상이 융합적 의미로 구현되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문은 소식의 仁과 慈悲 사상 등에 관한 학제 간 융합적 관점의 시도로 그의 사상적 융합과 실천을 고찰해봄으로서 그 현대적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유가의 仁과 불교의 慈悲에 대한 어원 및 그 함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공자의 仁은 논어를 중심 텍스트로 해서 대표적 개념을 살펴본 결과 하나의 정의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겠다. 공자는 인간의 가치 지향적인 도덕문제에 무게를 두고 적재적소에서 상황에 맞는 仁(인간중심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불교의 慈悲는 어머니가 자식을

41) 『蘇軾詩集』卷45, 「答徑山琳長老」: “大患緣有身, 無身則無疾.”

42) 『東坡禪喜集』卷1, 「觀世音菩薩頌并引」: “慈近乎仁, 悲近乎義, 忍近乎勇, 憂近乎智. 四者似之, 而卒非是. 有大圓覺, 平等無二.”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慈悲喜捨 사무량심을 실천할 때 진정한 慈悲心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소식의 백성들에 대한 憐愍과 慈悲는 그가 관직에 있을 때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지방으로 유배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조금도 불식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黃州시기에서는 지역이 궁핍하여 영아를 버리거나 죽이는 악습이 만연하였는데 소식은 가난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어린이구호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다. 惠州시기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적 특성에 의하여 방생호를 만들어 물고기를 놓아주고 곤충 미물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다룬 소식의 생명관을 살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남단 海南島 담주에서는 인간이 차마 살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였지만 마음을 전환하여 오히려 그 곳의 백성들에게 문명을 탈출하도록 힘을 불어넣어주었다. 더불어 약과 의사가 없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스스로 약을 지어 나누어주고 의사가 되어 병을 치료해주었던 것이다. 소식은 어려운 백성들을 위한 고생들을 조금도 싫어하지 않고 삶의 즐거움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소식의 백성에 대한 아낌없는 배움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사랑이 다시 소식에게 돌아왔던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소식의 인본주의적인 仁과 고통구제로서의 慈悲心 실천은 공자가 강조하는 忠이며 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교에서 강조하는 四無量心과 無緣 慈悲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蘇軾에 대한 연구 저변이 확대될 수 있고 인성교육의 연계활동에 존중과 배려 측면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될 가치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 T

만신찬속장경(卍新撰續藏經): X

鳩摩羅什 譯, 『金剛般若波羅密經』(T8)

- 龍 樹, 『大智度論』(T20)
- 張商英, 『護法論』(T52)
- 朱時恩, 『居士分燈錄』(X86)
- 蘇 軾, 王文誥 輯注,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2007.
- 蘇 軾, 孔凡禮 點校, 『蘇軾文集』, 北京: 中華書局, 1996.
- 蘇 軾, 張志烈, 馬德富, 周裕鍇 主編, 『蘇軾全集校注』, 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10.
- 蘇 軾, 李景明 點校, 任叔寶 主編, 『東坡志林』, 北京, 京華出版社, 1998.
- 蘇 軾, 『東坡禪喜集』,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4.
- 蘇 轍, 『欒城集』, 臺北, 中華書局, 1966.
- 林語堂 著, 張振玉 譯, 『蘇東坡傳』,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12.
- 殷寄明, 『說文解字』精讀,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5.
- 朱 熹, 『四書章句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 曾棗莊, 『蘇軾研究史』,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1.
- 許 慎,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書局, 1992.
- 卿三祥, 「蘇軾《論語說》鉤沉」, 『孔子研究』第2期, 四川 成都, 四川大學圖書館, 1992.
- 段景蓮, 「試論譚嗣同《仁學》的佛教傾向」, 『船山學刊』第1期, 河北, 河北大學哲學系, 1999.
- 唐明貴, 「蘇軾《論語說》的詮釋特色」, 『東岳論叢』第3期, 山東, 聊城大學哲學系 哲學研究, 2015.
- 大江東去, 「蘇軾的慈悲胸懷」, 『晚報文萃』第10期, 2014.
- 杜美玲, 『試論蘇軾的生命體悟及現實價值』, 內蒙古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 米壽江, 「試比較孔子的“仁”, 釋迦牟尼的“慈悲”, 蘇格拉底“善”的思想」, 『齊魯學刊』第1期, 1990.
- 林語堂, 『蘇東坡傳』,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12.
- 김호귀 역, 『維摩經義疏』, 서울, 도서출판 中道, 2018.
- 미산 외,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서울, 운주사, 2015.
- 成百曉 譯註, 『論語集註』,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01.
- 成百曉 譯註, 『孟子集註』,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2005.
- 曹圭百, 『蘇東坡 詩 研究』, 서울, 역락, 2012.
- 문을식, 『대승불전에서 자비 개념의 전개 양상』, 한국불자연합학회지, 2012.
- Robert C. Egan, *Word, Image, and Deed in the Life of Su Shi*,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慈 怡, 『佛光大辭典』,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4.

漢文大藏經(<http://www.cbeta.org/CBETA> 電子佛典集成光碟)

〈Abstract〉

Study Of the *Su Shi's* Ren(仁) and Compassion(慈悲) Thought Convergence
and the Practice

Yoo, Ji-Won

This study tried the interdisciplinary blended approach among the literary world, the religion, the thought, and the education of Su Shi (苏轼, 1036~1101) – the great writer of the Song Dyna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stablishing Su Shi's public values toward the Ren thought and the Compassion thought – the virtues of humanistic education – from a complementary standpoint and analyzing the source and the practice aspects of the two thoughts.

Su Shi lived a tough life while experiencing mental and realistic sufferings as the politically underprivileged person due to party strifes. However, even staying in a limited boundary during exile, he always thought of the people first and actively tried to share pain and joy with them. The root of his thought of loving people is different from the literary people of the ordinary political noblemen.

The main points of the ideology by Su Shi are difficult to understand since it ranges over the entire three ideologies – Confucianism (儒), Buddhism (佛), and Taoism (道). The studies which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have fragmentarily looked into his individual ideology or put focus on Confucian ideology even it was a blended study. Su Shi overcame life's hardships through Zen (禪) and mastered the meaning of blending. 'Blending' is combining after melting. This study understood th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Su Shi, comparatively examined his Selflessness (仁) and Mercy (慈悲) Ideology, and looked into cases of practicing blending ideology. This study established the boundary and relationship of selflessness (仁) and compassion (慈悲)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by focusing on flexibly combining blended relief projects by Su Shi with the political and social circumstances of the time based on the finalized meaning of selflessness (仁) and mercy (慈悲).

This study will expand the research boundary of Su Shi (苏轼) and open a new horizon in exploring blended humanitarian ideology of selflessness (仁) and compassion (慈悲) based on interdisciplinary connection. In addition,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n exemplary educational material in the aspect of 'respect and consideration', which are essential in the community consciousness of we live together during personality education associated activities.

Key words: Su Shi(蘇軾), Ren(仁), Compassion(慈悲), Confucianism, Buddhism, blending (融合), practice

이 논문은 2019년 7월 23일에 접수되어 2019년 8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8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